

# 경관자원으로서의 경승지선정과 구성요소 고찰

이기철\* · 강기래\*\*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은 오랜 세월 다양한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며 크게는 자연경관, 문화경관으로 구분한다. 자연경관은 인간의 영향이 없는 자연그대로의 경관조건이며 문화경관은 자연경관에 인위적 간섭이 이루어져 형성된 경관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경관은 훼손 없이 보존하여야 할 자원인 동시에 향유하고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근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경관을 통한 관광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관을 지정하여 관광객의 유치로 인한 자치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알리기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경관들의 구성요소와 각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합된 자연자원을 시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중간점검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자연경관에 대한 전국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현황 조사서를 발송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관요소들(팔경, 기타지정경관)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미 회신된 지방자치단체나 경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적조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조사를 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2008년 말까지 수립된 전국의 경관은 139곳, 1353경이며 우리나라 광복(1945)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광복 이전의 지정된 경관은 65곳 569경이며, 광복 이후 지정되거나 선정된 경관은 74곳 784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및 광복 이전의 경관에 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완전성과 깊이 있는 고찰을 위해 차후의 연구로 남겨두고, 광복 이후 선정되거나 지정된 74곳 784경에 대해서 그 특징과 위치적 분포 등을 고찰하려 한다. 고찰의 방법은 먼저 각 시도별로 지정

된 경관의 개소와 분포를 살펴보고 각 경관요소의 선정기준과 경관 속에 구성되어 있는 경관요소들을 고찰해 보고 향후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팔경의 의미

팔경의 원류는 중국 후난성 동정호 남쪽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8가지 아름다운 경관을 소상팔경(瀟湘八景)이라 하여 송시대 화가들의 그림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팔경도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팔경에 대한 시와 그림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다 점차 우리나라 풍경에 적용시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소상팔경의 형식에 맞추어 사언절구의 형식을 취하였다. 주로 앞 두 글자는 지역을 표시하고 뒤 두 글자는 풍광이나 시점을 통한 세부적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김동필 등, 1997).

근래에는 이러한 경관도 팔경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10경, 12경, 20경 등으로 자유로이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며(김동필 등, 2000), 표현 문구도 사언절구에 맞추기 곤란한 경관은 주로 지역 및 지명을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팔경의 풍광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명소 및 특산물축제 등도 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 알리기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 2. 경관요소별 분류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원류로 한 팔경의 내용은 소상야우(瀟湘夜雨), 동정추월(洞庭秋月), 원포귀범(遠浦歸帆), 평사낙안(平沙落雁), 연사만종(煙寺晚鐘), 어촌석조(漁村夕照), 강천모설(江天暮雪), 산시청람(山市晴嵐) 등 8가지이며, 이외에 파생되어 작성된 많은 사언절구 형식의 단어들이 있다(김동찬과 민경숙, 2003). 위의 소상팔경의 예로 볼 때 경관을 느끼기 위한 기본 조건은 특정한 시점, 특정장소, 특정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사언 절구로 형상화한 풍경을 볼 수 있다(진희성과 노재현, 1991)는 제약성이 있으며, 또 중요한 요소는 시각적인 것(평사낙안, 어촌석조, 강촌모설) 뿐만 아니라 촉감에 관한 것(산시

표 1. 경관요소별 빈도

항목		빈도수	항목		빈도수
형태적 요소	천문 현상	27	청각적 요소	유정물소리	3
	기상 조건	10		무정물소리	6
	소지역	470	감각적 요소	촉감적 요소	3
	지점	122		색감적 요소	20
	식물	20	시간적 요소		22
	인공구조물	24	관찰자 이동적 요소		17
이동적 요소	15	관찰자 참여적 요소		13	
무형문화적 요소		8	미분류		4
계		784			

청람, 연사만중), 천문에 관한 것(동정추월), 기상(소상야우, 강촌모설), 시간적 개념(어촌석조) 등도 경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복 이후 선정된 74곳 784명의 요소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몇 개의 요소로 구분하였다.

경관의 형태적 요소는 천문, 기상, 소지역, 지점, 식물, 인공구조물(대, 누, 정, 교), 청각적 요소는 무정물 소리와 유정물 소리, 감각적 요소는 촉감, 색감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 경관 요소의 성격에 따라 이동적 요소, 시간적 요소, 관찰자 이동적 요소, 관찰자 참여적 요소, 무형문화적 요소와 분류가 곤란한 미분류 등 16개 요소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특정한 소지역을 지정한 경우가 470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 특정지점이 122개소, 인공구조물을 지정한 것이 24곳 등이다. 이에 비해 낮은 빈도를 보이는 요소는 유정물 소리가 3곳, 촉감적 요소가 3곳으로 현대로 갈수록 촉감이나 감각을 경관에 포함시키는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3.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관 선정 결과

경관의 문화 관광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근래에 지정된 경관은 기존의 '팔경'에 해당되는 8곳의 자연경관을 지정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중 방문할 수 있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등을 경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의 축제나 지신밟기 등 지역의 무형문화, 축제 등도 포괄적으로 경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광복 이후 경관 선정 개소는 표 2와 같다.

광복 이후 지방자치단체 경관 선정 특징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단위에서는 부산을 제외하고 경관 지정 개소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자연풍경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도, 군 단위에서 경관 지정이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부산지역과 제주도 지역이 경관 지정을 적극적

표 2. 지방자치단체 광복 이후 경관 선정 개소

지역	선정개소	경관수	지역	선정개소	경관수
서울특별시	1	8	충청북도	2	18
부산광역시	9	133	충청남도	8	66
대구광역시	1	8	경상북도	7	57
대전광역시	1	8	경상남도	7	90
인천광역시	2	16	전라북도	5	67
울산광역시	2	24	전라남도	6	62
광주광역시	1	8	제주도	7	98
경기도	8	61	강원도	7	58
계	25	266	계	49	516

으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은 경관 지정을 자연자원, 공원, 녹지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생활자원 등으로 분류하여 경관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 영화제, 동래야류, 동래 지신밟기 등 무형문화적 요소들도 경관으로 지정하여 하나의 문화 관광개념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의 경우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경관을 선정하여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과 제주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의 훌륭한 경관 자원을 관광의 개념으로 접목시켜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활동과 동시에 그 지역을 널리 알리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 경관 선정을 살펴보면 자연형태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요소들(동래학춤, 북춤, 동래야류, 수영야류, 동래지신밟기, 좌수영 어방놀이) 및 관찰자 참여적 요소(부산국제 영화제, 부산바다축제, 기장멸치 축제, 부산국제 락페스티벌,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등)도 하나의 경관으로 인식시켜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III. 결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경관들의 구성요소와 각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고찰해 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자연경관에 대한 전국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현황조사서를 발송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승지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미 회신된 지방자치단체나 경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적 조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조사를 하여 자료를 보충하였다.

둘째, 2008년 말까지 수집된 전국의 경관은 139곳 1,353경이

며, 우리나라 광복(1945)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광복 이전의 지정된 경관은 65곳 569경이며, 광복 이후 지정되거나 선정된 경관지점은 74곳 784경이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광복 이후 지정된 경관에 대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팔경의 시초는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팔경도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팔경에 대한 시와 그림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다 점차 우리나라 풍경에 적용시켜 현재에 까지 전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소상팔경의 형식에 맞추어 사언절구의 형식을 취하였다.

넷째, 근래의 경관 지정 성격은 팔경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10경, 12경, 20경 등으로 자유로이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표현 문구도 사언절구에 맞추기 곤란한 경관은 주로 지역 및 지명을 표시한 것이 대부분 이다. 또한, 팔경의 풍광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명소 및 특산물축제 등도 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 알리기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다섯째, 경관의 구성 요소 중 특정한 소지역을 지정한 경우가 470개소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 특정지점이 122개소, 인공구조물을 지정한 것이 24곳 등이다. 이에 비해 낮은 빈도

를 보이는 요소는 유정물소리가 3곳, 촉감적 요소가 3곳으로 현대로 갈수록 촉감이나 감각을 경관에 포함시키는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광복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경관의 요소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경관은 그 자체로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과 제주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의 훌륭한 경관 자원을 관광의 개념으로 접목시켜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활동과 동시에 그 지역을 널리 알리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용문헌

1. 김동필, 이기철, 청목양이(1997)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21): 49-57.
2. 김동필, 청목양이, 이기철(2000) 일본에 있어서 팔경의 경관언어에 관한 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8(34): 10-17.
3. 김동찬, 민경숙(2003) 충청북도 팔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1(2): 30-39.
4. 진희성, 노재현(1991) 팔경의 의미체현에 따른 풍경개념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1): 31-43.